

진로적 측면에서 본 독서자본의 개념화 및 구성요소 탐색 : 빅 데이터 분석 활용

최미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The conceptualization of reading capital and the search for its components from the career perspective: Using Big Data Analysis

CHOI MI MI

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진로적 측면으로서 독서자본을 개념화하고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논문과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독서관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논문 209편을 대상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독서자본(讀書資本, Reading Capital)은 독서를 통해 체화된 소양, 경험, 태도 등 유·무형 능력이 표출되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실행해 나감으로써 개인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독서역량이란 독서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흥미, 경험, 태도, 능력이 축적이 되어 독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 정의하였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인간의 참된 본성과 전인성의 토대위해 인간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 갈수 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는 독서흥미, 독서활동, 독서태도, 독서능력을 독서역량으로, 정서지능, 관계성, 자아정체성, 창의성, 적응성, 주도성, 가치관 등을 인문학적 소양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독서자본의 정의, 구성요소의 탐색 및 정의는 관련 후속연구들 간의 연구 확장에 기초자료로써 그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reading capital in the career contex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rther study by exploring the components of reading capital. For this purpose,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were reviewed. In addition, we conducted big data analysis regarding 209 papers concerning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reading, and explored the components of reading capital. Through this study, reading capital can express personal, intangible ability such as literacy, experience, and attitude embodied through reading, and enable understanding persons, looking at the world positively, and creating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values. The components of reading capital are reading competency and humanistic knowledge; the former was conceptualized to be reading literacy, reading activity, reading attitude, reading ability, and the latter was conceptualized to be emotional intelligence, relationship, self-identity, creativity, adaptability, self-directedness and values. The definitions and components researched of the reading capital derived through this study are thought to be highly useful as basic data for the expansion of research between related studies.

Keywords : Career Reading, Reading Capital, Reading Competency, Humanistic Knowledge, Industry 4.0

*Corresponding Author : Choi Mi Mi(Kyonggi Univ.)

Tel: +82-10-6410-8407 email: jobview1101@hanmail.net

Received March 30, 2018

Revised (1st April 23, 2018, 2nd April 30, 2018)

Accepted June 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 서론

기술빅뱅으로 불거진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한다. 미래학자 클라우스 슈밥(2016)도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 인류가 지나쳐왔던 그 어떤 산업혁명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잠식하며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 것’이라고 말한다[1].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기술·산업·고용구조 뿐 아니라 사회구조 까지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직무역량 뿐 아니라 윤리·법제도, 교육 및 사회제도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청년층이 직면할 직업 및 사회 환경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에, 변혁의 시대를 살아갈 청년층의 진로와 관련해 다양한 접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변화에 국가가 모든 개인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긍정적이고 건장한 삶을 영위하고 끊임없는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즉, 미래에는 전환의 시간이 여유 있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미래를 내다보고 다음 단계를 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3]. 더불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경영해 나가며, 현명하게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기업들도 급변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Fast Follower(재빠른 추격자)에서 First Mover(개척자,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기업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적응성과 혁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독서에서 찾고자 하였다. 독서를 통해 형성된 독서자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은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대에서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간으로서 빛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사고와 기능을 일깨우는 학문으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4], 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며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유

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인문학적 소양은 상상력과 통찰력을 통해 문제 상황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5].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문제’이며, 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먼저이고 기술과 사람을 잇는 그 핵심에 인문학적 소양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문학적 소양은 짧은 시일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독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힘인 독서역량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독서역량은 독서에 대한 개인이 갖고 있는 흥미, 경험, 태도, 능력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독서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형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현재 독서자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독서자본의 하위요인인 독서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과 연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독서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하나의 독서자본으로 보고 연구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독서역량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 대부분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학적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연구는 간호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중학생과 대학생 대상 연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변혁의 시대를 살아갈 청년층의 주요 자산이 될 독서자본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4차 산업혁명, 독서자본, 진로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독서 자체가 아니라 독서를 수단으로 하여 형성된 독서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진로적 측면에서의 독서자본(讀書資本, Reading Capital)으로 보고, 독서자본을 개념화하고자 하며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독서자본을 개념화 하고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청년층에게 진로자본의 한 측면으로서 독서자본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체화하게 함으로서 변혁의 시대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며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

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본론

2.1 자본개념의 확장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산업혁명을 거쳐서 성립된 근대 산업사회의 경제구조[6]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자본(capital)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asset)으로, 경제자본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자본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의 자본은 거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다. PC기반에 인터넷이 출현한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며 개인에게 보급된 데스크톱 컴퓨터(Desktop Computer)는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시대,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이 자본이자 자산이 될 수 있는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자본은 경제에만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의 자질도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며 인적자본을 필두로 자본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7].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을 정의하자면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현재의 지출을 통해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8].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도 가치가 줄어들거나 소멸하지 않는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적자본 외에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진로자본, 지적자본 등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자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심리학적 시각으로 본 자본은 적용 가능 영역이 매우 넓다. 이러한 자본들은 여가자본(Leisure Capital), 또래자본(Peer Capital), 영적자본(Spiritual Capital), 제도자본(Institutional Capital), 기술자본(Technology Capital), 생활자본(Living Capital)[9], 매력자본(Erotic Capital)[10], 감정자본(Emotional Capital)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의미로서 자본은 교환 수단인 재화(commodity)로 보지 않고 사회 내에서 개인의 삶에 내재된 형태로 생활 요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도구이며, 사회현상을 분석적이고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1]. 이러한 자본은 체화된 형태로 축적되기까지 상당

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동일하거나 확장된 형태로 스스로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12]. 또한 개인이나 조직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유·무형의 득과 실을 경험하게 되므로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진화하며 지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13]. 사람들은 이러한 자본을 동시에 여러 개 지니고 있다[7][14].

2.2 독서이론의 연구동향

독서자본이라는 용어는 인공지능(AI)의 시대를 넘어 설 유일한 자본이 독서라 말하며, ‘3,000권 독서자본 프로젝트’를 통해 책 읽기를 제안하려는 의도로 이상민[15]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졌으나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독서자본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서이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독서이론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에서 세 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첫 번째는 독서 발달에 대한 이론으로 생애 발달 시기에 따라 독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16]. 두 번째는 독서 지도와 교육에 대한 이론으로 이는 독서 자체보다는 교육의 방법론으로서 독서를 논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독서의 심리학적 접근이 시도되며 독서치료, 독서요법이 생겨났으나 독서를 의료의 관점에서 수단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독서 자체로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야기되기도 하였다[17]. 세 번째는 독서의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독자와 책(저자)의 상호작용에 대해 거론하며 독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18].

한편, 한명환(2015)은 독서이론의 내용을 인지주의, 형식주의, 독자반응이론과 해체주의, 텍스트 구조 이론, 사회문화 구성주의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각각의 독서이론들은 저마다 장점과 결함을 갖고 있어 완벽하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다만, 과거의 이론이 저자 중심의 이론이라면 현재는 독자 중심의 독서이론이 더 시의적이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독자반응이론이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독자, 텍스트, 상황요인 중에서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독서를 본질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독서이론은 교육이나 치유의 목적에서 우선될 수 없고, 오히려 인문학적 사유

와 독서에 대한 아우라,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학, 철학, 역사, 문화 등 인문학적 학문의 연구방법과 접맥해야 하며, 미래의 생산적 독서이론으로서 생산 가능성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앞의 연구들은 독서에 있어 독자의 지식과 경험, 생각에 바탕을 두어 독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독서를 본질적 관점에서 접근하려함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독서는 개인의 삶에 내재된 형태로 생활 요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독서가 체화된 형태로 축적되어 가치 창출이 일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독서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독서역량이 갖춰줘야 하며, 이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이 유발되고 궁극적으로 유용한 가치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서가 가치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발성, 주도성,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갖추고 있는 독서역량이 중요하며, 여기에 인문학적 소양이 접맥될 때 생산수단으로써 미래의 생산성을 높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확장된 자본 개념의 조건과도 일치하기에 독서를 자본으로 볼 수 있겠다.

2.3 독서자본의 개념

기업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많은 CEO들은 독서를 생활화하며 독서자본을 획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서를 통해 지식 창출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얻기 위함이며, 이를 활용해 자신과 기업의 경영에 활용하기 위함이다[19].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들의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도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아왔다는 보고가 있다(쭈쭈키 쭈구오, 2013). 그런데 이러한 예는 기업의 CEO들이나 유명인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독서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학생 10명 중 7명은 ‘책 읽기가 사회생활·학교생활에 도움’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독서량이 많을수록 독서의 유용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성인의 66.3%는 인문학 독서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독서를 하는 목적으로 성인의 경우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23.1%) 책을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18.5%),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성인과 같이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31.3%) 책을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독서가 즐겁고 생활화 됨’(15.7%), ‘교양·상식 쌓기 위해서’(15.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20].

이러한 결과는 린다 그랜튼(2012)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역량으로 제시한 지적자본(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감성자본(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회자본(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독서가 세 가지 자본에 대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금은 지식이 고도화 되고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며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이다. 이에 지식경제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보습득 능력은 이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과 지식습득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전략인 것이다[21]. 어제는 최고의 기술로 여겨졌던 것이 오늘은 기계로 대체되어 필요 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으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성실히 노력해서 유망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것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이기에 현재의 삶에 고착되지 않고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삶을 변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독서자본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5].

독서는 인쇄된 글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하고 자신의 지식을 계발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22]. 또한 책 속의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수용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16]. 독서를 통해 축적된 독서자본은 받아들인 정보를 새롭게 변형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23]. 나아가 직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몰입하게[24]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하고 조직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시킨다[25]. 더불어 사회 안에서 상

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기제[22]로 작용한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의 ‘독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별 연평균 독서율은 여러 경제 지표·지수중에서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 경제적 혁신성 지수,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6].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독서는 언어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27]. 우리나라 비독자의 언어능력 평균은 246점인데 비해,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읽는 독자는 278점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며, 언어능력 또한 개인·직업적·시민적 활동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년~2018년)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28], 책 읽는 문화·독서사회를 일종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보고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독서의 생활화를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29].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① 사회적 독서 진흥기반 조성 ②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③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④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현 등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독서가 자본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동일하거나 확장된 형태로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자본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또한 독서자본은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려 직업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의 진로에 지적자본, 감성자본,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기제로 작용하기에 진로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용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독서자본(讀書資本, Reading Capital)은 독서를 통해 체화된 소양, 경험, 태도 등 유·무형 능력이 표출되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실행해 나감으로써 개인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독서자본은 지속 가능한 발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성,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지

적 능력[15],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등이 핵심이다. 따라서 독서자본은 개인이 독서 과정을 통해 축적된 독서역량과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내재된 인문학적 소양이 주요 요인으로, 두 요인에 의해 파악되고 설명되어진다.

독서역량을 구성하는 독서흥미는 독서활동에 영향을 주고[30], 독서활동은 경험으로 작용하고 경험들이 쌓여서 태도가 형성되며[31], 독서경험은 독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2]. 또한 폭넓은 독서경험은 삶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해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33]. 그렇기에 위의 독서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선형적이기 보다는 상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OECD(2002)에 따르면 학생의 독서역량 개선은 후년의 경제적 기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독서습관의 고양은 사회적 변화 및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34].

올바른 독서태도에 의해 형성되는 합리적 사고력, 정서안정, 심리 자유, 교양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품격 높은 선진사회 발전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식경제를 뛰어넘어 소위 창조경제를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독서역량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5].

결과적으로 독서란 흥미에 의하여 유발되고 동기가 발생되어 흥미를 다시 발달시키며, 그 흥미에 의하여 독서와 여타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일종의 나선상의 순환을 하면서 발달 한다.[36]. 이러한 행동은 다시 자기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경험으로 작용하고 경험들이 쌓여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며[32], 긍정적인 태도는 독서 의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37],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서능력이 향상되며[33], 다시 독서행동이 유발되는 선순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즉, ‘독서흥미 → 독서행동 → 독서경험 → 독서 태도 → 독서능력 → 독서흥미’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를 일으켜 독서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며 독서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독서역량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독서에 대한 흥미, 경험, 태도, 능력이 축적이 되어 독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자·정·의 발전으로 이끄는 힘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지’는 적극적 사고의 과정이고[38], ‘정’은 정서 고양이며[39], ‘의’는 의

미구성 과정으로 책을 읽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40] 및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독서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독서역량이 기반이 되어야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이 촉발된다. 그런데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며 역량이 있으나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41]. 그러므로 역량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각’, 즉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자기인식은 자기를 이해하고 아울러 타인도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공고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42]. 그런데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색과 통찰로 이어지는 독서가 필요하다[43]. 한경희(2014)는 자기를 객관화하여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자기인식은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44]. 독서를 통한 독서역량의 신장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사고의 폭과 깊이를 증가 시켜[45](한철우 외, 2001) 사색과 통찰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사색은 생각을 정밀하게 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내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독서자본의 힘이다[46]. 이러한 독서와 사색의 결합이 지혜의 힘을 만들어 내며,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찰이 필요하다[47].

통찰이란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살피고 이제까지 경험을 통합하여 자신을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48]. 통찰의 원리는 새로운 관계를 깨닫고 축적된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며, 통찰 과정은 상황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차리는 관계의 지각으로, 이는 곧 ‘자기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49].

더 나아가 자기인식 및 사색과 통찰은 인문학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로 자신과 세상 그리고 삶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인문학을 ‘질문의 학문’이라고도 한다[50]. 즉, 사색과 통찰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게 하고[51], 자기성찰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한다[52]. 결과적으로 독서역량과 인문학적 소양 또한 선형적이 아니라 상호 순환적 작용을 하며 독서자본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독서자본은 그 효과가 당장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의 발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향한 시야를 넓혀준다. 특히 불확실한 현실에서는 홀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을 해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능력은 얼마안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사와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류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사고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에서 비롯된다[53].

최근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을 표방하며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정의하였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며, 비판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4].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적 소양’은 ‘독서’와 연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나누며 표현하는 것을 통해 경청·소통·사고·성찰이 일어나며, 이처럼 삶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55].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은 인간 세계에 대한 경험을 넓혀 주고 성취동기를 유발시켜 원만한 인격 형성을 이루도록 하며[56],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며 삶의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도록 한다[57].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을 하자면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58]. 인간의 존재, 인간의 마음, 생각과 행동의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59]으로 인간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성의 어원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에서 유래되었다. ‘인간다움(humananitas)’이란 말을 맨 처음 사용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에 의하면 인간적 교양(humanitas)은 문학적 교양(literae)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곧 문학을 통한 지식의 궁극은 인간성(humanity)이라는 것이다[60].

같은 맥락으로 박정준(2004)은 사고하는 방법을 독서를 통해 배우게 될 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빠른

폭넓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독서는 창의적 사고능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엿대[61].

한편, 인문학적 소양은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독서활동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문화, 예술, 역사, 철학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제언하고 있다[62].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인간의 참된 본성과 전인성을 기반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 갈수 있으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최첨단의 기술과 문명의 성취를 보여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은 사물화 되어가고 기능화 되어 가며 인간으로서의 고유성을 상실한 채[63]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 예술의 영역 등 인간의 자리를 서서히 인공지능(AI)에게 내어 주고 있다. 이에 성균관대 이종관 교수는 『포스트휴먼이 온다』라는 책에서 기술 변화야말로 인간의 운명과 미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하며 인간의 고유성에 주목한다. 알파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인간에 관한 담론이 뇌 과학에 집중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의 활동과 가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64].

인공지능(AI)의 핵심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 이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을 하고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모방해서 만든 기술이다. 그런데 독서는 인간의 뇌를 ‘딥 러닝(Deep learning)’하여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촉매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축적된 창의력, 지혜, 내공은 돈이나 땅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미래를 보장해 줄 자산이며, 이에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의 유일한 자본이 바로 독서자본인 것이다[65].

2.5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독서를 통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활용하였다. 이는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진 요소들로 효과성이 검증되어 독서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독서자본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형성된 독서역량 및 인문학적 소양을 독서자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독서자본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빅 데이터 분석 기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대부분이 소수의 포커스 대상을 선정하여 인터뷰가 진행된다. 인터뷰 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관념을 연구에서 완전히 분리하기가 어렵기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념의 우려가 있어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특히 연구자의 윤리가 중요한데,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과 관찰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66].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질적 연구 대신 선행연구논문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 분석 기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추출한 후 각 키워드별 빈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문서를 클러스터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기법이다[66].

이를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 등록된 석사·박사 학위 연구물을 대상으로 독서·인문학·책을 키워드로 검색한 다음 독서 관련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 209편(2010년~2017년)을 2018년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수집하였다. 수집한 연구물 209편(2010년~2017년)의 내용 전체를 빅 데이터 분석도구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Word Frequency를 실시하고 Word Cloud, Word Tree Map 등으로 시각화 하였다. 데이터의 분석과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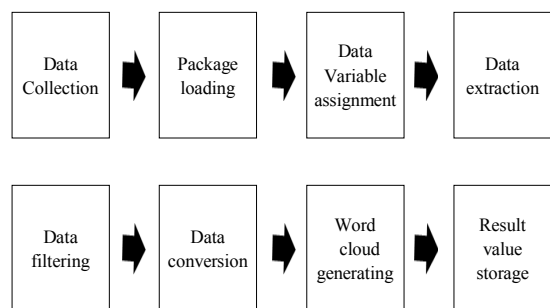


Fig. 1. Data analysis process

2.6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ree Map 및 Word Cloud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학생, 자아존중감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독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Word Cloud, Word Tree Map, 등으로 Fig. 2., Fig. 3.와 같이 시각화 하였다.

웹의 등장과 진화, 전자 문서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텍스트 데이터는 빅 데이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 시각화 사례로 Word cloud, Word tree 등을 꼽을 수 있다[68].



Fig. 2. Reading related Word Cloud



Fig. 3. Reading related Word Map

209편의 논문을 Text 4, Text 5로 형태소 분석 및 Word Frequency 실시한 결과 논문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Word를 포함하여 연구내용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Word 각각 1,001개씩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Word 중 ‘유의미 하계’, ‘구성하였다’, 등과 같이 연구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Word를 2차로 추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Table 1.과 같이 70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Table 1. Keyword Analysis Result

Rank	Keyword	Freq.	Rank	Keyword	Freq.
1	Values	186	36	Decision Making	184
2	Empathy	198	37	Communication	330
3	Empathy ability	882	38	Voluntary	214
4	Communtty consciousness	116	39	Confidence	850
5	Positive	810	40	Self-understanding	240
6	Logical	110	41	Self-regulation	176
7	Activity	390	42	Self-esteem	175
8	Reading Education	1762	43	Ego-esteem	6579
9	Reading notes	191	44	Self-expression	147
10	Reading ability	357	45	Self-efficacy	1415
11	Reading club	248	46	Self-concept	903
12	Reading volume	450	47	Self-identity	937
13	Reading meeting	203	48	Self-acceptance	92
14	Reading habits	196	49	Self-directed	170
15	Reading therapy	1717	50	Ego-resilience	370
16	Reading attitude	1670	51	affirmative	1340
17	Reading discussion	788	52	Emotional regulation	451
18	Reading environment	286	53	Emotional intelligence	1621
19	Reading activity	2084	54	Emotional expression	155
20	Interesting reading	144	55	Using emotion	154
21	Interpersonal competency	157	56	Constantly	496
22	Interpersonal	1629	57	Job satisfaction	163
23	Goal Orientation	147	58	Career values	191
24	Problem-Solving competency	283	59	Career development	165
25	Future convictions	94	60	Career maturity	559
26	Thinking ability	177	61	Creativity	565
27	Sociability	186	62	Creative	316
28	Social	346	63	Intimacy	178
29	Imagination	138	64	Prosocial	366
30	Achievement motive	147	65	Catharsis	385
31	Life satisfaction	131	66	Insight	196
32	Life adaptation	489	67	Learning motivation	172
33	Idea	2017	68	Academic achievement	151
34	Reading motivation	223	69	Resilience	62
35	Relationships	222	70	Systematic	321

추출된 키워드를 유사성이 있는 요소별로 범주화 작업하였다. 분류 및 범주화 과정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직업학 박사 2명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1차 구성요소 확정 후 주제어들이 알맞게 범주화되었는지 재분류 및 검토하는 2차 과정을 거쳐, 최종 범주화 작업을 하고 구성요소를 확정하였으며, 결과는 Fig.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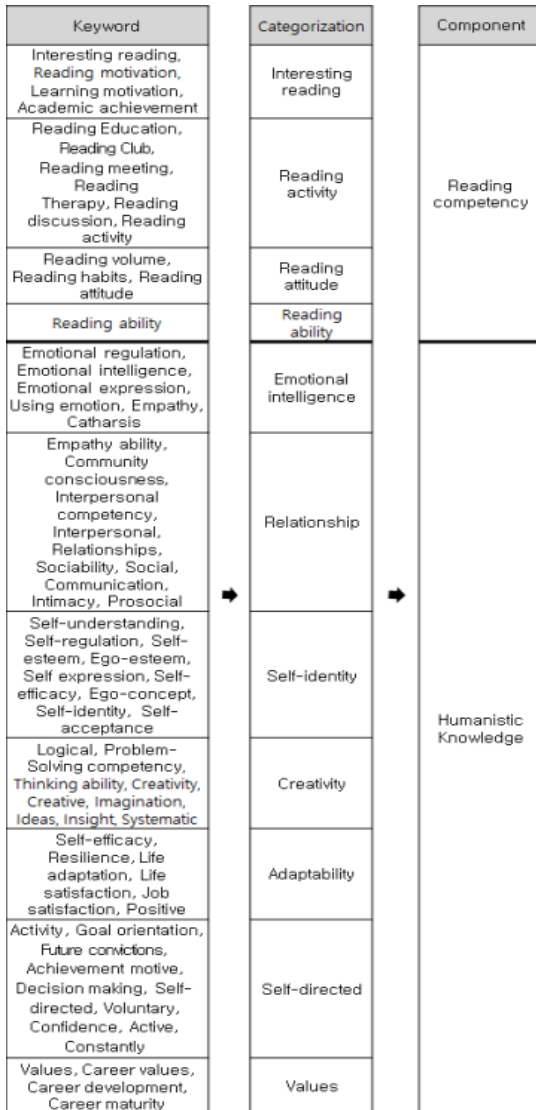


Fig. 4. Work flow chart

분류된 주제어 중 ‘독서환경’은 독서를 통해 형성되는 것 보다 부모님, 지역적 특성 등과 같이 주변 상황에 의

해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작용하기에 구성요소에서 제외하였다.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는 독서흥미, 독서활동, 독서태도를 독서역량으로, 정서지능, 관계성, 자아정체성, 창의성, 적응성, 주도성, 가치관 등을 인문학적 소양으로 정립하였다.

확정된 구성요소는 Fig. 5~Fig. 15.과 같이 Word Tree로 시각화 하였다. Word Tree는 문장 내에서 단어 들 사이의 관계나 연결 구조를 시각화한 것으로 단어가 선·후의 순서로 출현되는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 Word Tree의 경우 전체 문서의 분석결과가 아니며, 최대 문서수와 단어수를 제한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각화 자료이다. 즉,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서를 모두 읽지 않고도 데이터 내부의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수집된 문서에 대한 간략한 프리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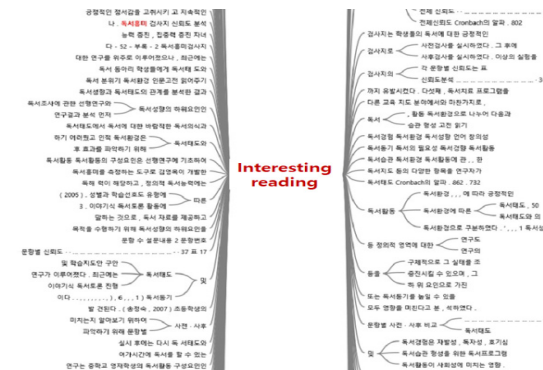


Fig. 5. Interesting Reading Word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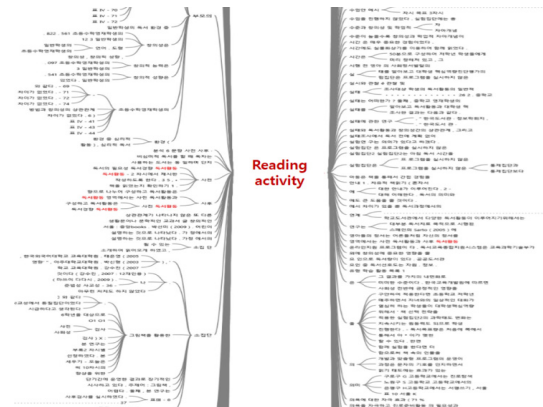


Fig. 6. Reading activity Word Tree



Fig. 11. Self-identity Word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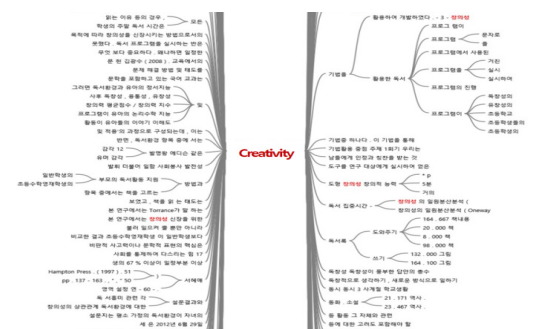


Fig. 12. Creativity Word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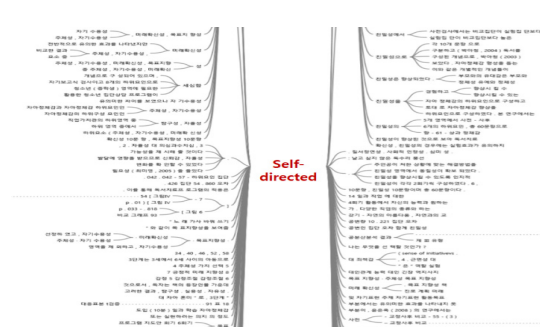


Fig. 13. Self-directed Word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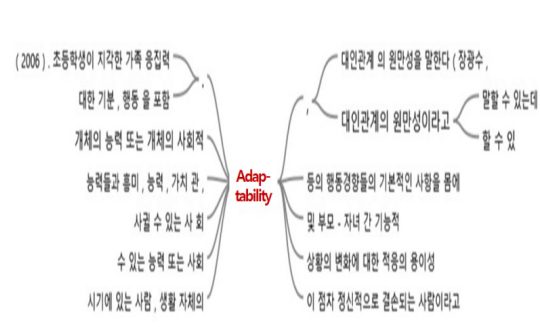


Fig. 14. Adaptability Word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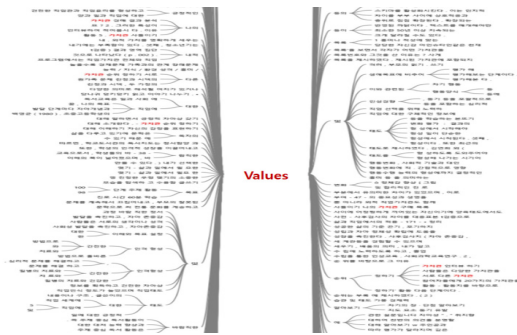


Fig. 15. Values Word Tree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자본(讀書資本, Reading Capital)은 독서를 통해 체화된 소양, 경험, 태도 등 유·무형 능력이 표출되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실행해 나감으로써 개인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둘째, 독서자본의 구성요소인 독서역량이란 독서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흥미, 경험, 태도, 능력이 축적되어 독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지·정·의 발전으로 이끄는 힘으로 정의하였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인간의 참된 본성과 전인성의 토대위해 인간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 갈수 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는 독서흥미, 독서활동, 독서태도, 독서능력을 독서역량으로, 정서지능, 관계성, 자아정체성, 창의성, 적응성, 주도성, 가치관 등을 인문학적 소양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 등록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독서·인문학·책을 키워드로 검색한 다음 독서 관련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 209편을 수집하여 내용 전체를 빅 데이터 분석 도구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Word Frequency를 실시하고 Word Frequency 실시한 결과 논문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Word를 포함하여 연구내용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Word 각각 1,001개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Word 중 ‘유의미 하계’, ‘구성하였다’, 등과 같이 연구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Word를 2차로 추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최종 70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직업학 박사 2명의 자문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를 유사성 있는 요소별로 분류 및 범주화 과정을 1차, 2차로 진행하여 최종 구성요소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독서자본의 정의, 구성요소의 탐색, 정의는 관련 후속연구들 간의 연구 확장에 기초자료로써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독서자본의 개념 정립과 구성요소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확정된 구성요소는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 대상에 맞게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독서자본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발판이 되고, 더불어 독서자본 함양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독서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Klaus Schwab, Industry 4.0, pp. 5, Seoul: Mega books, 2016.
- [2] Enews [Internet],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First steps in national renovations for Social System, Industrial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cited 2017 Oct 11]. Available From: <http://www.etnews.com/20171011000140> (accessed Mar., 13, 2018)
- [3] D. I. Sun, The Future of Work: What is Changing In addition What's Coming?, Seoul: Influential, pp.178, 2017.
- [4] E. J.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Moral Education Using Humaniti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h. D. Thesis, 2016.
- [5] J. S. Lim, Reading method to ask questions, pp. 50-53, Goyang: Pyongdan, 2018.
- [6]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7794&cid=46630&categoryId=46630> (accessed Mar., 13, 2018)
- [7]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 Wood, 1986.
- [8]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The Ambiguous Position of Private Schools*, Illinois, 1988.
- [9] S, Kang, The Communication and Capital, pp. 8, Seoul:

- Communication Books, Inc, 2016.
- [10] Hakim, C. *Erotic Capital*, pp. 10, Seoul: Minumsa publishing group, 2010.
 - [11] S. Kang, *The Communication and Capital*, pp. 3, Seoul: Communication Books, Inc, 2016.
 - [12] Bourdieu, P., S. C. Ryu, *Social capital : Theories and Issues*, pp. 62, Seoul: Green, 2015.
 - [13] Backlund, E. A., & Kuentzel, W. F., Beyond progression in specialization research: Leisure capital and participation change. *Leisure Sciences*, vol. 35, no. 3, pp. 293-299, 2013.
DOI: <https://doi.org/10.1080/01490400.2013.780543>
 - [14] H. J. Lee, *The Effect of Career Capital of Younger Employees for Career Path Development Volition*, Kyonggi University, MA. Thesis, 2014.
 - [15] S. M. Lee, *The Reading Capital*, pp. 17. Seoul: Seoul Media, 2016
 - [16] C. W. Han, The recent tendency of reading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system for read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rts Education Research*, Vol. 9, pp. 1-24, 2005.
 - [17] M. H. Han, A Study on the contemporary research of books of reading guide and reading theory, *The Korean Publishing Science Society*, No. 72, pp. 81-101, 2015.
 - [18] Graves, M. F., Juel, C., & Graves, B. B., *Teaching reading in 21st century*. Needham Height, MA: A Viacom Company, 1998.
 - [19] I. W. Hwang, *Get Ideas from the Poem*. pp. 5, Seoul: Next Wave Media, 2010.
 - [2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Research Report on Reading Status in Korea, [cited 2016 Jan 22], Available From: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List.js p. (accessed Mar., 14, 2018)
 - [21] S. S. Hwang, A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ng in Reading circles, Dong Eui University, MA. Thesis, 2015.
 - [22] Y. S. Joo, *The study on the guardianship device and the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reading for elementary school pupil*, Mokwon University, MA. Thesis, 2002.
 - [23] H. J. Lee, *Correlations of Reading Disposition and Creativity between Mathematically Gifted and Avera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16.
 - [24] S. R.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Activitie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Library Employees, Hansung University, MA. Thesis, 2016.
 - [25] J. S. Kim, *The influence of reading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members'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16.
 - [26] S. H. Yoon, *Economic Impact Report on Reading*, KERI Brief 16-11, [cited 2016 May 24], Available From:
http://www.keri.org/web/www/issue_02, (accessed Mar., 14, 2018)
 - [2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A case study on the reading situation and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ies of overseas major countries, [cited 2016 Jan 29], Available From: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List.js p. (accessed Mar., 14, 2018)
 - [2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asic plan of reading culture promotion(2104~2018), [cited 2014 Jan 28], Available From:
http://www.mcst.go.kr/web/s_data/deptData/deptDataList.jsp, (accessed Mar., 14, 2018)
 - [2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Culture and Arts Policy White Paper, pp. 515, [cited 2017 Feb 22], Available From:
http://www.mcst.go.kr/web/s_data/deptData/deptDataList.jsp, (accessed Mar., 14, 2018)
 - [30] M. K. Kim,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Reading Interest, and Reading Activity on Sociality*, Kyungnam University, MA. Thesis, 2008.
 - [31] J. H.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ading Attitude Survey for Childre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 D. Thesis, 2016.
 - [32] S. J. Kim,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Reading Ability-focused on Jeollabuk-do,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45, no. 2, pp. 51-71, 2014.
DOI: <https://doi.org/10.16981/kliss.45.2.201406.51>
 - [33] T. D. Lee, *Intensive planning, classical reading, opening the door of the soul for human thought: focusing on our classical literature*, Arts Council Korea, [cited 2001 Apr 14], Available From:
www.arko.or.kr/zine/artspaper2001_04/14_19.pdf, (accessed Mar., 14, 2018)
 - [34] OECD(2002). *Reading for Change: Performance and Engagement across Countries: Results from PISA 2000*.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OI: <https://doi.org/10.1787/9789264099289-en>
 - [3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Culture and Arts Policy White Paper, pp. 510, [cited 2017 Feb 22], Available From:
http://www.mcst.go.kr/web/s_data/deptData/deptDataList.jsp, (accessed Mar., 14, 2018)
 - [36] J. Y. Hong, *Study on improving interest of reading by reading instruction focusing on activity*, Kyonggi University, MA. Thesis, 2008.
 - [37] M, H. Kim, A Study on the Reading Environment Factors Influencing the Reading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17.
 - [38] Ruddell, R. B., & Unrau, N. J., *Reading as meaning construction process: The reader, the text, and the teacher*. I R. B. Ruddell, M. R. Ruddell, & H. Singe(Eds.), *Theoretical and process of reading*, IRA
 - [39] G. M. Seong, *The effects of Reading program for character education-focused community-interpersonal competence on middle school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ltruism, empathy ability and reading motiv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17.
 - [40] Thomas G. Gunning, *Creating reading instruction for all children*.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1996.

- [41] D. S. Shin, Influence of Human Capital of Vulnerable Classes on Overcoming social Exclusion, Chung-Ang University, Ph. D. Thesis, 2011.
- [42] John C. Maxwell, The power to stand up again, Seoul: Business book, pp. 24, 2017.
- [43] The Jeju Newspaper, Reading and meditation, The Fragrant Jeju, [cited 2017 Nov 16], Available From: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940> (accessed Mar., 31, 2018)
- [44] K. H. Han, Reading process study for developing humanity, Literacy Research, No. 9, pp. 249-280, 2014.
- [45] C. W. Han, M. S. Kim, Y. M. Park, Literary -Centered reading guidance, 2001.
- [46] S. M. Lee, The Reading Capital, pp. 51. Seoul: Seoul Media, 2016.
- [47] S. H. Ahn. The 10 things have to read a book, pp. 158, Seoul: Book force, 2009.
- [48] K. H. Ban,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Biblio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High School Student s'Self- Concept,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 allyn and Bacon, 2001.
- [49] Y. M. Min, A Study on Reading Therapy using Hwang Sunwon Novel: Focusing on 'Restoration of Humanity', Ajou University, MA. Thesis, 2008.
- [50] J. S. Lim, Reading method to ask questions, p. 61, Goyang: Pyongdan, 2018.
- [51] S. H. Baek,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eading States and School Record of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rural area, Semyung University, MA. Thesis, 2008.
- [52] E. J. Kim, A Study on overall lecturing and learning Music Guidance for Cultivating Human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17.
- [53] W. C. S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HRD Review, Vol. 19, no. 6, pp. 39, 2016.
- [54] Ministry of Education, 2015 Commentary on the Revised Curriculum, pp. 43, 2016.
- [55] Ministry of Education, Happy Education Webzine, vol. 420, pp. 44, [cited 2017 Jul 19],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brochureBoard/list.do?board=1&m=020203&s=moe#list> (accessed Mar., 14, 2018)
- [56] S. K. Cho, Developing reading guidelines to raise reading interest and develop reading habits: focus on the small group of 5th graders in rural primary school, Gongju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03.
- [57] Y. O. Kim, The Effects of Humanities Education on the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A Case Study on the Sexual and Humanities Education in After-school Schools, Korea University, MA. Thesis, 2013.
- [58]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terminology dictionary, [cited 195 Jun 29],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1853&cid=42126&categoryId=42126>, (accessed Mar., 14, 2018)
- [59] J. S. Lim, Reading method to ask questions, pp. 60-61, Goyang: Pyongdan, 2018.
- [60] M. L. Park, Social Humanities as a Consilient System of Knowledge, (Human) Science, and Education: Interconnecting Publicness with Individuality, Societas and Humanus, Life and Knowledge PDF icon, Institute Korean Studies, no. 156, pp. 39-79, 2011.
- [61] J. J. Park, A study on plans of increasing reading skills through school reading guidance program : Focusing on reading activities in high school, Hongik University, MA. Thesis, 2004.
- [62] J. Y. Ha, S. Y. Jeon,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264-273,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264>
- [63] H. Kim, Reading Mythology and Drama as a Means of Human Restoration in the Digital Age, *The renaissance Association of korea*, vol. 17, no. 1, pp. 81-116, 2008.
- [64] The Kyunghyang Newspaper, The philosoph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mentioned by two domestic scholars, [cited 2017 Oct 11], Available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11505001&code=960201, (accessed Mar., 14, 2018)
- [65] S. M. Lee, The Reading Capital, pp. 18. Seoul: Seoul Media, 2016.
- [66] D. B. Lim. Qualitative Methodology: Approach and Application,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vol. 15, no.1, pp. 155-187, 2009.
DOI: <http://dx.doi.org/10.19067/jgs.2009.15.1.155>
- [67] R. Feldman, I. Dagan,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s(KDT)" *KDD*, vol. 95, pp. 112-117, 1995.
- [68] H. Y. Kim, Analyzing Pattern of Manifestation of Textuality in Text Visualization Images, Chung-Ang University, Ph. D. Thesis, 2014.

최 미 미(Mi-Mi Choi)

[정회원]



- 2015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 석사)
- 2015년 3월 ~ 2017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2015년 8월 ~ 2017년 2월 : 한국관광대학교 국제비서과 겸임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한국고용정보원 프로그램 전문 강사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상담, 진로독서코칭, 직업심리, 직업정보, 노동시장, NCS(국가직무능력표준)